

박태환 "명예회복" 마지막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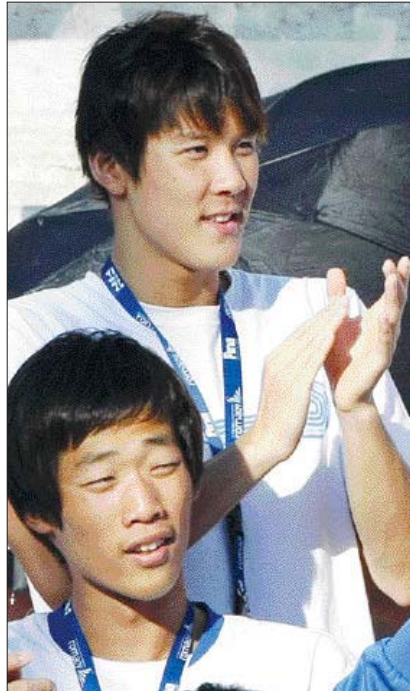
로마수영선수권 오늘 1,500m 예선 출전 라이벌 장린 등 강자 준비 막판 '배수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박태환(20·단국대)이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마지막으로 명예회복에 도전한다. 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 경기가 그 무대다. 8위 안에 들어야 3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결승전에 뺄 수 있다.

남자 자유형 1,500m는 자유형 400m 및 200m에 이어 박태환의 이번 대회 마지막 출전 종목이다. 박태환은 앞선 두 종목에서 손잔을 들었다.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거꾸로 금메달을 뒀던 자유형 400m에서는 12위로 예선 탈락하며 충격을 줬다. 멜버른 대회 동메달,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승에서 전체 16명 중 13위를 차지해 주저앉았다. 메달은 커녕 개인 최고 기록조차 깨지 못했다.

이제 남은 1,500m는 명예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 대회를 거울 삼아 재도약을 하려면 일단 자신감부터 찾아야 한다.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서 개인 최고 기록 경신을 목표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다. 올해 미국에서 실시한 두 차례 전지훈련 중 지구력 강화와 탄 동좌 보완 등에 주력한 것도 자유형 1,500m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서



정다래 응원하는 박태환

2009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박태환 등 한국선수단이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로 이탈리아 메인풀에서 열린 여자 평영 200m 준결승에서 정다래를 응원하고 있다.

저조한 성적을 내자 '장거리 훈련이 잘 됐다면 400m 기록이 안 좋았을 것이다'며 박태환의 1,500m 목표 달성도 불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태환으로서의 앞선

경기의 부진을 잊고 무너진 밸런스와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자유형 1,500m 역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사마 멜룰리(튀니지)를 비롯해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은메달리스트인 장린(중국) 등 경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 특히 장린의 페이스가 무섭다. 장린과는 1,500m 예선부터 격돌한다. 4조에서 박태환의 3번, 장린이 5번 레인을 배정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장린은 7분32초12에 물살을 갈라 그랜트 해켓(호주)이 4년 전 몬트리올 세계대회에서 세운 종전 세계 기록(7분38초65)을 깨뜨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중국 남자선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장린이 처음이다.

박태환은 "장린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내게 진 뒤로 내 사진을 방에 걸어놓고 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놀랐다. 나는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장린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 자부심을 느꼈다. 장린과 같은 동양인인 나 또한 세계 최고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특유의 승부욕을 드러냈다.

장린은 자유형 1,500m에서 아시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를 때 자유형 1,500m에서 14분55초03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린이 베이징올림픽에서 14분45초84로 아시아 최고 기록을 10초 가까이 줄였다. 박태환은 개인 기록 경신과 함께 장린에게 내준 아시아 최고 기록도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혀왔다. /연합뉴스

김송희 1타차 2위

LPGA 브리티시여자오픈 첫날 순항

박희영·위성미 등 한국 5명 '톱 10'



김송희 선수가 지난달 31일 영국 리엄 세인트앤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 4번홀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김송희(21)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강풍을 뚫고 순조롭게 첫날을 마쳤다.

김송희는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랭커셔의 로열 리덤 앤 세인트 앤스 링크스(파72·6천492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단독 선두 산드라 갈(독일)에 1타 뒤진 김송희는 13번홀(파4)까지 버디만 4개를 뽑아내며 선두로 나서기도 했으나 이후 보기 3개와 버디 1개에 그쳐 첫날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송희는 "평소에 공

을 높이 치는 편인데 오늘은 낮게 공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바람이 강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희영(22·하나금융)이 1언더파 71타로 미쓰카 유코(일본)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고 배영은(25)과 위성미(20·나이키골프), 김초롱(25)이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7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위성미는 "바람이 강해 언더파 점수를 내기 어려웠지만 바람이 많은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면서 "아직 3일이 남았는데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용은 버디 9개 공동3위

PGA 뷰익오픈·최경주 6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코리아 브러더스 중 유일한 위너스 클럽멤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두번째 우승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양용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 위윅힐스 골프장(파72·7천12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뷰익 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적어냈지만 버디 9개를 쓸어담는 맹타를 휘둘렀다.

7언더파 65타를 친 양용은은 단독선두 스티브 로리(미국·9언더파 63타), 2위 존 샌드에서 타수를 많이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팔판을 마련했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양용은은 전반에 3타를 줄인 뒤 1번홀(파5) 버디를 2번홀(파4) 보기로 맞바꾸는 등 잠시 주춤했으나 6번홀부터 9번홀까지 4개홀 연속 버디를 낚아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6번홀(파4)에서 2타를 잃은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버디 6개로 만회하며 공동 24위(4언더파 68타)에 자리했고 나상욱(26·타일러메이드)은 3언더파 69타로 공동 44위에 올랐다. 올 시즌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오승준(27)과 함께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공동 68위에 머물러 2라운드에서 타수를 많이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KBO 총재특보 이상국씨

이상국(57)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KBO에 다시 입성했다.

KBO는 지난달 31일 유영구 총재가 이전 사무총장을 총재 특별보좌역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6월 박용우 전 총재의 특보로 KBO에 첫발을 내디딘 이 전 사무총장은 11년 만에 두 번째로 특보를 맡게 됐다.

1999년 12월28일 KBO 사무총장에 취임해 재임 6년간 타이틀 스폰서 유치와 중계권 협상 등에서 수완을 발휘, KBO 재정을 탄실시 살찌웠다든 평가를 들은 이 특보는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 창단을 주도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무음

▲김석근씨 별세 광제(주)다이다이대표)·성제(국토해양부 서기관)·순제(건강보험공단)·선경씨 부친상 홍흥주(전) 통일부 관리관)씨 부부상=발인 3일(월)

조순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순임씨 별세 신광섭·길순씨 모친 상=발인 2일(일)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인선씨 별세 임병덕·병권·병훈씨 모친상=발인 2일(일) 조순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경남씨 별세 김연기·진호씨 모친

상=발인 1일(토) 학동 금오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장점덕씨 별세 백우현(자영업)·창현(교육과학기술부)·농주·선주·화주씨 모친상 홍영권(대검찰청 사무관)·김주환(새울교회 목사)씨 부부상=발인 1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www.megabox.co.kr

1관 해운대 (12세)	최고급관
2관 국가대표 (12세)	
3관 해운대 (12세)	
4관 업(전제)/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5관 국가대표 (12세)	
6관 차우 (18세)/블러디 발렌타인 (18세)	
7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메디엄 (15세)	
8관 국가대표 (12세)	
9관 해운대 (12세)	

콜롬버스 시네마
www.joybc.com/1588-7941

1관 해운대 (12세)	
2관 메디엄 (15세)/블러디 발렌타인 (18세)	
3관 해운대 (12세)	
4관 해운대 (12세)	
5관 업(전제)/트랜스포머 (12세)	
6관 차우 (18세)	
7관 국가대표 (12세)	
8관 업(전제)/국가대표 (12세)	
9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	
10관 국가대표 (12세)	

하미 시네마
www.hamcinema.co.kr/1588-9120

1관 업(전제)	
2관 국가대표 (12세)	
3관 메디엄 (15세)	
4관 킹콩을 들다 (전제)/트랜스포머 (12세)	
5관 국가대표 (12세)	
6관 차우 (18세)	
7관 해운대 (12세)	
8관 국가대표 (12세)	
9관 해운대 (12세)	
10관 해운대 (12세)	

씨너스 전대
www.cinus.co.kr/1544-0070

1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	
2관 차우 (18세)/트랜스포머 (12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업(전제)/메디엄 (15세)	
6관 해운대 (12세)	
7관 해운대 (12세)	

제일 시네마
www.jeilkinema.co.kr

1관 해운대 (12세)	
2관 해운대 (12세)	
3관 메디엄 (15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업(전제)/차우(18세)	
6관 해리포터 (전제)/차우 (18세)	